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일시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의 급락을 경험했지만,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시설 관련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았다.
- 2020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급증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21년에 중학교에서는 감소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는 확실하게 낮아졌지만,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는 중위권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하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학력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 최근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보기 드문 국가다. 이 같은 성취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진흥을 위해 설립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선

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교육·훈련이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을 무지와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의 공급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교육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에 힘쓰기보다 선발과 변별에 경도된 교육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와중에 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간 한국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교육·훈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제에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어떠한 변화가 진행됐는지 살펴보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교육·훈련에서 전개되는 주요 변화를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과 관련하여 교육단계별 취학률, 진학률 및 평생학습 참여율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교육단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실태, 코로나19를 전후한 학업성취 수준 변화 양상, 평생학습 참여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 추이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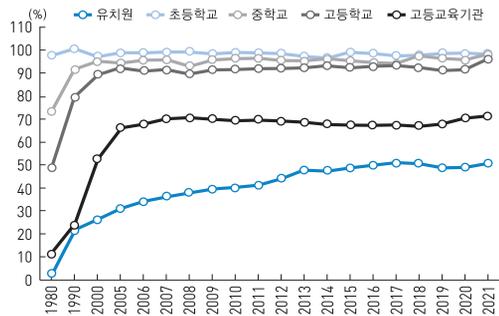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관련 지표는 국민이 다양한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평생교육 참여율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교육단계별 사교육 참여율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취학률은 국민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 해당 교육단

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비율로 산출한다. [그림 IV-1]에는 각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이미 97.7%로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1990년에는 100.5%로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했던 학생들의 존재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021년 현재 취학률은 98.4%이다.

[그림 IV-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21



- 주: 1) 취학률=(취학 적령 재적학생 수 ÷ 취학 적령 인구)×100.
 -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인.
 -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될 수 있음).
 -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이었고 1990년에 91.6%로 상승한 후 2018년에는 98.0%까지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 조정을 거치면서 2021년 현재 97.9%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의 급속한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가 되었다. 이 같은 신장세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2021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6.1%까지 높아졌다. 보편교육 수준에 가깝게 취학률이 높아진 까닭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취학률이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그쳤다. 하지만 1981년 졸업정원제 시행,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등에 따라 취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에는 52.5%로 상승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뒤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66.9%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1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1.5%로 보고됐다.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된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하여 50.8%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후 유치원 취원율은 다소 조정을 보이다가 2021년 현재 50.6%까지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다닌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사실만으로 많은 아동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진학률도 교육기회의 향유 정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

들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은 취학률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나 입시제도 변화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학률은 취학률보다는 다소 역동적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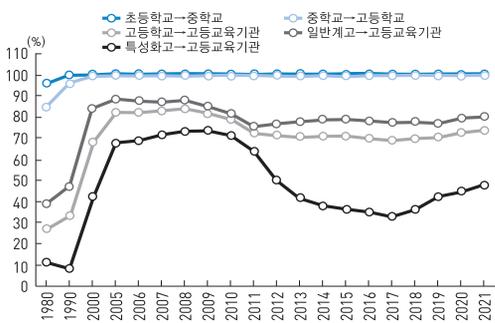
[그림 IV-2]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와 다름없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에 줄곧 99.6~99.8%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해서 2000년에는 68.0%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계속 높아져 2008년 83.8%로 정점에 다다른 뒤에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21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3.7%이다. 참고로 2011년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추계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조금씩 하락한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확인한 뒤에 다시 조금씩 높아져



2021년 현재 80.3%에 다다랐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17년 32.8%를 기록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여 2021년 현재 47.8%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21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 연도 졸업자 수)×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는 2010년까지는 해당 연도 2월 기준 합격자, 2011년부터는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 등록자에 해당함.
 6) 일반계·특성화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2004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도입되면서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90%에 달하는 등 특성화고 운영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내놓으면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크게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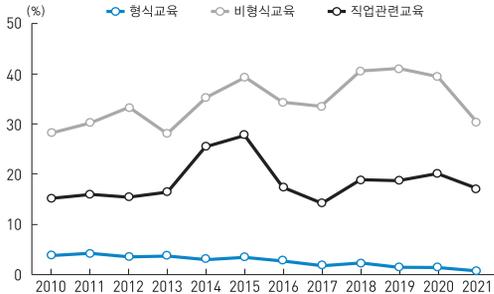
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졸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자가 대학 진학을 도모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용 안정성의 저하에 따라 평생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다시 찾는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인 학습자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평생학습은 크게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으로 나뉜다.

[그림 IV-3]에는 2010년 이후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평생학습 가운데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관련된 형식교육 참여율은 절대 수준 자체가 낮고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3.9%였지만 2021년 0.8%까지 낮아졌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추진될 만큼 교육기회의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까닭에 앞으로도 평생학습에서 형식교육 참여율은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나 학위 인증과 무관한 비형식교육 관련 수요는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28.2%에 불과했지만 2012년 33.1%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28.0%로 떨어진다. 2014년 다시 35.2%로 반등한 후에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9년 40.9%까지 다다른 후에 2021년 현재 30.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3] 평생학습 참여율, 2010-2021



-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79세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 4)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학습 및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직업 관련 교육은 취업, 창업 또는 재취업 목적의 자격증 취득 교육이나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유사한 양상으로 움직인다. 실제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2010년 15.1%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5년 27.7%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14.1%에 다다른 다음 다시 반등하여 2021년 현재 17.1%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을 무력화할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대학진학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실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가 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공교육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실태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림 IV-4]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까지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반등세가 좀 더 일관되고 가팔랐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크게 낮아졌는데,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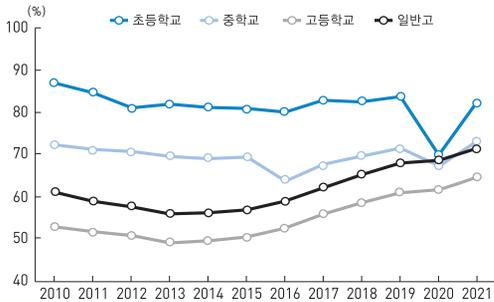
코로나19가 교육현장을 처음 엄습한 2020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모두 급락했다. 2019년과 비교해서 초등학생은 13.7%p, 중학생은 4.1%p 낮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입시 대비의 부담이 적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일시적이거나 사교육을 접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1년에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중학생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사교육 참여율에 다다른 것을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던 셈이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차별화된 사교육 참여율 추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점은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고등학생(특히 일반고)의 경우 사교



육 참여율이 2013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후 그 흐름을 줄곧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코로나 19 시기에도 전혀 꺾이지 않았다. 2021년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2.0%)이 가장 높고, 중학생(73.1%), 고등학생(64.6%)이 뒤를 이었다.

[그림 IV-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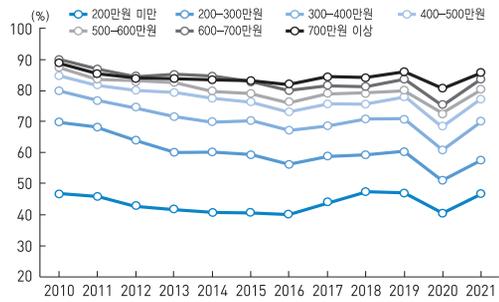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2)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학교는 사교육 참여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의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IV-5]는 사교육 참여율과 부모 경제력 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모든 소득집단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점이 잘 드러나는데, 사교육 참여율의 반등세는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구

체적으로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2010년 사교육 참여율이 46.6%였는데, 2018년에는 47.3%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2021년 현재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46.6%인데, 다른 모든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200~300만 원 집단에 비해서 10.9%p 낮다.

[그림 IV-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21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실태에서도 여실히 느껴진다. 2020년 모든 소득집단이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에는 대다수 소득집단이 코로나19 이전의 사교육 참여율을 거의 회복했다. 다만 소득수준 5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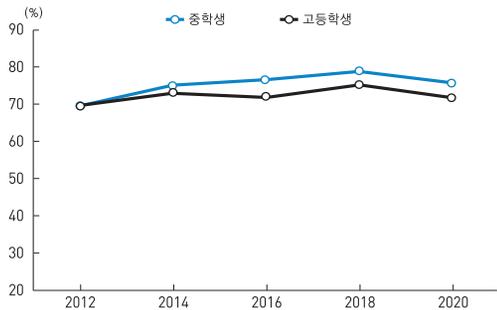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 지표들은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분류된다. 학생수준 지표로는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등이 있다. 학교수준 지표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고등학생의 삶에서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중심을 형성하며 여러 가지 정 의적 특성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만족스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수월해진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교우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림 IV-6]에는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14년 이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일 관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2016년 이래 양자 가 차이가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2년 69.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78.8%에 다 른 후 2020년 현재 75.7%를 기록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2년 69.4%에 서 2018년 75.1%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현재 71.5%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6] 중·고등학생 교우관계 만족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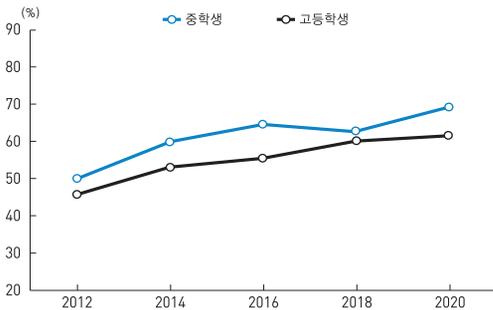
주: 1) 교우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우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사관계 만족도는 교우관계 만족도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에도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IV-7]에는 중·고등 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중·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 족도는 2012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두드 러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고등학생보 다는 중학생이 높은 편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교사관계 만족도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커서 중학생 64.5%, 고등학생 55.5%로 9.0%p의 격 차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 양자 간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가 2020년 중학생 69.2%, 고등학생 61.5%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다시 7.7%p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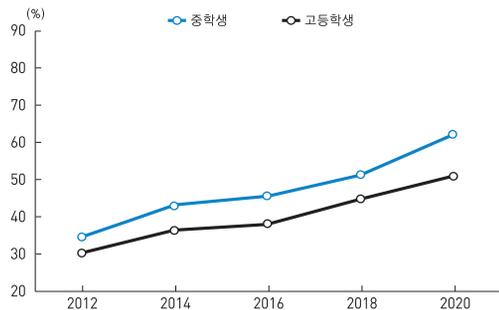
[그림 IV-7] 중·고등학생 교사관계 만족도, 2012-2020



주: 1) 교사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사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등학생의 만족도 30.3%보다 4.2%p 높았지만, 2020년에는 중학생 62.1%, 고등학생 51.0%로 양자 간 만족도 차이가 11.1%p로 커졌다.

[그림 IV-8] 중·고등학생 학교시설 만족도, 2012-2020



주: 1) 학교시설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학교시설 만족도는 교육을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신세대일수록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에 따라 학교 만족도 제고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이 갖는 중요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V-8]에 제시됐듯이 중·고등학생의 학교시설 만족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학교시설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양자 간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중학생의 학교시설 만족도는 34.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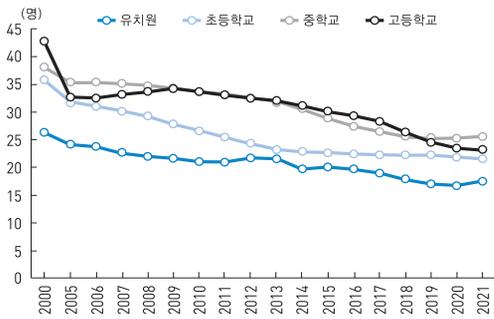
학급당 학생 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정도, 수업지도의 질, 교육환경의 쾌적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진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교육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림 IV-9]는 교육단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보여준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소세가 상당히 가파른 편이다.

2010년까지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

장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다가 2019년 큰 폭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중학교보다 낮은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일관되게 가장 낮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했다. 2021년 현재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5명,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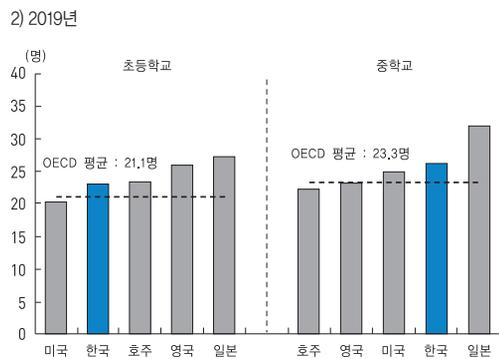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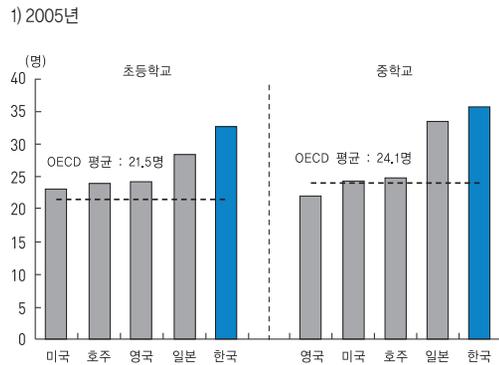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교육 영역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IV-10]에는 2005년과 2019년 두 시점에서 산출한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0명으로 미국(20.3명)보다는 많지만, 일본(27.2명), 영국(26.0명), 호주(23.4명)보다 적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21.1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사정이 좀 더 열악해 일본(32.0명)을 제외하면 한국(26.1명)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를 찾기 힘들다. 2019년 현재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23.3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림 IV-10]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2019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21.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를 포착하기 위한 지표는 다양하다.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관련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코로나19 전후 학업성취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참여 성과를 고찰한 후에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추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IV-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 이수가 가능한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전반적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다. 그나마 중학교는 2021년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는데, 고등학교는 2021년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표 IV-1〉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폐해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읽힌다.

〈표 IV-1〉 성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0-2021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0	4.4	5.8	2.9	4.0	5.2	2.5
2011	2.2	2.9	1.5	3.3	4.2	2.2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4	2.1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2020	9.0	12.0	5.8	9.6	13.3	5.8
2021	7.8	10.6	5.0	10.4	14.1	6.5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이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하게 높거나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도 훨씬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0년 5.8%로 1.4%p 증가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8.2%에서 12.0%로 3.8%p 급증했다.

다만 2021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 대비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나타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은 4.2%에서 5.8%로 1.6%p 증가한 반면, 남학생은 6.8%에서 13.3%로 6.5%p나 폭증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21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남학생 14.1%, 여학생 6.5%로 역대 최고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다다랐다. 2021년 현재 남녀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는 중학교 5.6%p, 고등학교는 7.6%p로 나타났다.

앞서 <표 IV-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력을 크게 떨어뜨렸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표 IV-1>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 분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의 실상과 배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표 IV-2>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요 교과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전후한 학업성취 분포의 변화는 교과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어의 경우 2019년 평균

149.6점, 표준편차 15.6점, 90분위 169점, 10분위 133점이던 것이 2020년 평균 146.3점, 표준편차 16.1점, 90분위 164점, 10분위 128점이 됐다. 수학은 2019년 평균 148.4점, 표준편차 20.2점, 90분위 171점, 10분위 122점이었는데, 2020년 평균 146.7점, 표준편차 22.0점, 90분위 172점, 10분위 113점으로 달라졌다. 영어는 2019년 평균 153.2점, 표준편차 17.1점, 90분위 173점, 10분위 132점이던 것이 2020년 평균 151.8점, 표준편차 18.9점, 90분위 175점, 10분위 126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 고등학생의 코로나19 전후 학업성취 변화, 2019 vs 2020

연도	분포	과목 (점)		
		국어	수학	영어
2019	평균	149.6	148.4	153.2
	표준편차	15.6	20.2	17.1
	90%ile	169	171	173
	50%ile	149	150	153
	10%ile	133	122	132
2020	평균	146.3	146.7	151.8
	표준편차	16.1	22.0	18.9
	90%ile	164	172	175
	50%ile	147	149	153
	10%ile	128	113	126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원자료,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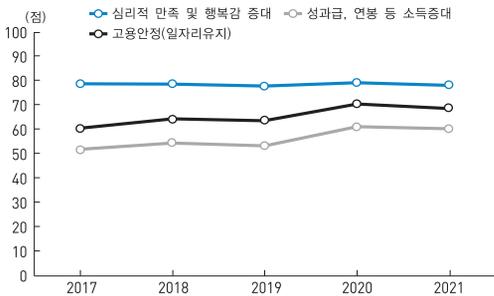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가 낮아진 점을 간파할 수 있다. 다만 국어 과목에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성취도가 하락했지만,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는 상위권에서 미세하나마 성취도의 상승이 감



지된다. 즉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기간에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중위권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하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학력의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

최근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질과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IV-11]에는 사람들이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평생학습 참여가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소득증대, 고용안정 순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순위는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유지됐다. 다만 평생학습 참여 성과로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에 대한 평가는 시계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소득증대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미미하나마 꾸준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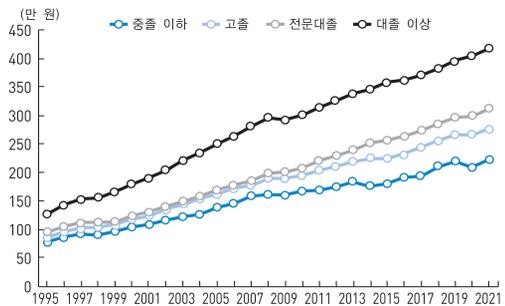
[그림 IV-11] 평생학습 참여 성과, 2017-2021



주: 1) 평생학습 참여 성과는 만 25~79세 성인인구 중 평생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응답 결과임.
 2) 5점 척도(1=전혀 도움이 안 됨~5=매우 도움이 됨) 응답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마지막으로 [그림 IV-12]에는 교육효과 관련 지표인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통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졸 이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5년 78만 원에서 2021년 222만 원으로 약 185% 상승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에 고졸자는 221%, 전문대 졸업자는 232%, 그리고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231%의 임금상승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 4년제 대졸 이상 근로자는 중졸 이하 근로자보다 약 62%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2021년에는 그 프리미엄이 약 88%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가 고용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전문대 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졸자 대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2]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1995-2021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를 표본으로 함.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맺음말

코로나19는 한국교육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한층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증과 학력 양극화 현상의 발생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증가, 영양 상태 불균형 심화, 사회성 발달 저해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게 했다.

한편 코로나19는 한국 공교육의 가능성과 한

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중위권 학생이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적어도 중위권 학생에게는 학교가 유용한 배움과 학습의 장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고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계층 간 교육격차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도 분명해졌다. 코로나19가 남긴 여러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